

기고



천정배 국회의원

새 정부가 들어선지 곧 1년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들의 적폐청산에 열심인 한편, 제주4.3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의 상처 치유에도 노력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대치를 화해모드로 전환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을 보면, 우리 사회의 낡은 적폐 기득권 구조가 선의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의 권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같은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도 멋대로 고치고 국회도 해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촛불국민혁

문재인 정부, '협치'로 전환해야

मंत्री 그토록 거셌어도 박근혜 탄핵은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이뤄졌다. 촛불혁명 과제들을 실천하는 것도 결국 국회를 통해야 한다. 과거를 바로세우는 것은 적폐청산으로 가능하겠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체계적인 법제도의 개선에 성패가 달려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선 답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협조로 국민들과 약속했던 개혁과제들이 대통령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지도 모른다.

'여소야대' 야당 협조는 필수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다. 지금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와 아닌가. 대통령 보다 1년 넘게 묵은 국회이고 앞으로도 2년 넘게 가는 국회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어떻게 하면 국회 다수파를 형성해서 국정을 뒷받침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당시 대통령의 소속당만으로는 소수파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합여당인 자민련과 여타의 소수파들을 끌어 모으느라 밤잠을 못 이루곤 했다. 말

로만인 아니라 '개혁'을 실제 만들어내기 위해선 실사구시적 문제의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하에서 정부는 협치를 통해 정국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선 그런 노력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서 문재인 정부는 눈곱만큼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다. 개혁은 물론이고, 선거제도,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그 어떤 개혁 과제들도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가 수많은 감동적인 수사와 정책비전을 제시해 놓고 중국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정부여당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회를 개혁 우군 만들어야

지금대로라면 권력은 오래 잡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데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파적인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2년여간 남은 국회의 임기를 그대로 흘러보낼 요량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가 개혁의 우군이 될 수 있도록 다수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일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사설

전남대병원 유치경쟁 자제해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전남대병원 유치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너도나도 자기지역으로의 유치 타당성을 내세우며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업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인지 의문이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신축·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번 주부터 병원과 의과대학 의료진, 직원, 동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 신축·이전의 찬성 여부와 어느 지역이 부지로 적절한지 등을 묻고 있다. 병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982년 건립된 전남대병원은 리모델링, 보수비용으로 해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에 비해 병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신축이전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지자들의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점이 걸린다. 아직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병원 내부 구성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측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치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은 물론 호남 최대의 국립 중심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전남대병원의 신축·이전 문제는 철저한 타당성과 정부와의 교감,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옳다. 자칫 정치적 결정으로 부지가 결정될 경우,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부메랑 될 수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과 병원측은 명심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 '깜깜이 선거' 우려

6·13 지방선거를 두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단테처럼 관심도 쏠리면서 정작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공인 광역·기초의원들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다간 자칫 당만 보고 찍는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단테장은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에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선거의 초점이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등에만 쏠리면서 이들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시들하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100명을 크게 웃돈다. 특히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광역의원 대비 두 배가 넘는다. 현재 광주 광역의원 경쟁률은 2.7대 1, 기초의원 경쟁률은 2.1대 1로 전국평균 1.5대 1보다 높아 경쟁률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들 광역·기초의원 입후보자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경선통과가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 스스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행위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은 지방권력을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단체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방권력이 그만큼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치다. 따라서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에게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 공정, 공평의 리더십으로 스윙하라



이봉철의 알짜배기 골프

31 -1 제갈량의 골프경영

제갈량은 중국 후한 말에 태어난, 촉한의 초대 승상, 전략가이자 명재상으로 지혜의 아이콘이다. 제갈량은 어려서 빼어난 재주와 영웅의 그릇이었고 키가 8척에 용모가 매우 훌륭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뛰어난 인물로 여겼다.

삼국지의 유비가 삼고초려하여 얻은 인재인 제갈량은 재상중에서 왕보다 높은 황태자와 같은 급인 최고의 재상인 상국의 벼슬까지 오른다. 제갈량은 1,800년전의 시대에 살면서 제4차 혁명시대를 예측하는 천재이다.

스루더그린을 공략하는 방법에서도 지형지물과 바람, 동반자의 내공을 살펴 흘한홀에 급급하지 않고 18홀 전체를 이길

어가는 전략이다.

제갈량은 인재의 스윙을 한다. 나라에 충성하면서도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없다. 사람들의 좋은 점을 활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인재들을 선발하는 것과 기존의 인재들을 분발시키는 용인술이다. 제갈량의 라운드는 동반자들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어 중용을 하고 독려를 한다. 장점이 있는 파트너를 찾아낸다.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한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은 제갈량은 인재등용에 있어서도 기득권의 충돌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갈량이 보인 통치술은 매우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이다. 백성을 어루만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정한 정치를 실행한다. 관직을 간략하게 하고 권부의 제도를 느슨하게 한다.

제갈량은 삼공의 리더십인 공개, 공정, 공평으로 페어플레이를 평정한다. 라운드시에 게임 룰의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골퍼에게는 중한 위반을 하였고 하더라도 배려하였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말을 교묘하게 꾸



미는 골퍼에게는 비록 가벼운 위반을 하였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벌을 물었다.

제갈량은 삼고초려와 읍참마속의 스윙을 한다.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지만 원칙을 위하여 자기 아끼는 사람을 과감하게 버린다. 골프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골프 자체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키

우는 게 먼저이다. 파트너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책임을 가지는 스포츠맨십이다. 골퍼들이 소소하게 생각하는 각종 절차에도 정통하다. 스코어 카드 작성, 타격의 순서, 각기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동반자의 주장을 경청한다. 지연 플레이나 허위로 가득한 동반자와는 두 번 다시 라운드하지 않았지만 언행일치의 동반자에게는 마음을 공평하게 쓰고 상주고 벌주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은 그를 존경하고 아낀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터득한 결출한 인재인 제갈량은 경제에도 탁월하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라운드를 활성화하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에 시선을 두고 있다. 스트로크게임에서 스킨스게임에 이르기까지 공평한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마음을 열고 공정한 정치를 실행한다. 법제의 바른 시행이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법을 행함이 근엄하여 동반자들은 마음으로 기뻐하여 원망하지 않고 집중하고 전력한다.

골프클럽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독자투고

봄의 불청객 비염

날씨도 점차 따뜻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산에 상춘객들로 붐빈다. 하지만 이런 봄날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염은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 등이 나타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다. 흔히 이러한 증상을 토대로 비염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및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난다.

비염에는 대표적으로 만성적으로 비염을 앓는 만성비염과 급성비염으로 나뉘고, 만성비염 중에 봄철에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꽃가루와 황사,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봄만 되면 콧물이 멈추지 않고, 재채기가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비염 뿐만 아니라 인후염, 편도염 등 각종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비염은 완치가 어렵다고 하나 관리만 꾸준히 해준다면 완치가 가까



손종선 보성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사

운 치료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손을 자주 씻고, 각종 미세입자들이 기관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쓰기 등만 해줘도 재채기나 콧물 등을 눈에 띄게 줄을 수 있다. 그리고 약물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신체가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증상이 심해질 때 약물요법 치료를 해야 한다.

올해 봄을 아쉽게 보냈다면, 내년에는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치료하여 나들이도 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

독자광장

학교폭력 발생시 반드시 신고하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경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되는 시기, 특히 4월이다. 경찰에서는 선제적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체감도 제고 및 면학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관련 117 신고 접수 4월 현황을 보면 2014년 8,577건, 15년 8,824건, 16년 7,644건, 17년 8,003건으로 다른 달에 비해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인 4월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 외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으며,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각 가정, 관계기관 등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런 행위들을 사전 철폐, 안전한 학

교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혹시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보호 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리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와 직접 상담, 설문조사, 신고함, 교사메일이나 학교명의로 된 메일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국번없는 117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117번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긴급상황일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다.

전화가 어려울 시 #0117로 문자하는 방법과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될 수 있어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꼭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전국민이 합심하여 학생들은 오로지 면학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진병진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유머@세상

◇좋은 소식 vs 나쁜 소식 vs 환장할 소식

-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 환장할 소식: 외국으로 돌이 출장가야 한다네.
-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네.
- 나쁜 소식: 옆집 애도 타왔네.
-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 고 전교생 다 주었다네.
-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네.
- 나쁜 소식: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네.
-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 좋은 소식: 살다 참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가워서 가져온 거라네.
- 좋은 소식: 아내가 산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 환장할 소식: 뉴스에서 돌팔이 라고 잡혀가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가슴앓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망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궁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